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 5 집
조직신학편 pp.113-122

개혁주의 예배

- 전통과 갱신을 추구하면서 -

Reformed worship

김 재 규

(신학대학교대학원 교수)

목 차

I. 들어가는 말

II. 본말

III. 맺는말

개혁주의학술원

1. Paul W. Hoon(폴 훈)교수는 예배의 통합(The Integrity of Worship) 이란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예배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God’s revelation)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man’s response)”이라 했다. 이는 기독교 중심의 예배론이다. Heidelberg 대학 교수였던 Peter Brunner는 ‘Worship in the name of Jesus’에서 예배의 이중적의미 곧 ‘회중에 대한 하나님의 봉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의 봉사로서의 예배’ 로 보았다. Evelyn Underhill은 1936년 성공회적 전통에 의거 ‘어떤 형태이든 예배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계의 응답이다’ 라고 예배를 규정하고 있다. 곧 ‘분명한 계시에 대한 분명한 응답’ 으로 본다. 최근 로마 카톨릭에

서는 예배를 ‘하나님의 영화와 인간의 성화’로 보며 성례 중심적 인간 교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일, 축일, 정해진 시간의 언어와 공간의 언어, 성물, 성찬등의 상징 행위 등을 내포한 전체를 예배와 연관시킨다.(James F. White,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ship). ‘예배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경험한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 앞에 감격하는 신령한 행위요,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물을 진실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깊은 신앙을 전인격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이다... (정장복, 예배 순서의 재음미, 기독교 사상 1985, 5월호, p216) 예배는 고백 공동체(교회)가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과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worship은 곧 service의 동질로 보는 것과 정기 주일예배의 성공은 6일간 세상 삶속에서 노동, 만남 등 현장적 생활예배의 삶으로 연결되는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예배 인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장로교 예배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정신으로 표현된 예배이다. (Soli Deo Gloria -박근원, 장로교회 예배 전통(김소영 박사 회갑 논문집), 기독교 서회 1990, p101)

2. 본 글은 우리 개혁파의 예배 모범 제시와 특히 주일 낮 예배 중심의 순서 및 대부분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학적 모순성과 그 갱신의 실재를 제시하고 특히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예배 의식의 원류를 찾아 분석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예배 회복을 기하고자 한다. 특히 장로교 예배 모범, 곧 우리 개혁파 교회의 전통적 예배와 오늘의 상황에 개혁하고 갱신해야 할 예배를 찾으려 한다.

3. 서술 형태로 기술하고 Footnote나, 참고서적은 내용속에 삽입한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II. 본말

1. 1986. 4. 미국 Princeton 신학보 “Theology Today”에 ‘오늘의 개신교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F. R. Anderson의 글중, 예배 의식의 세 가지 경향을 말한 바, 예배 의식 우파로서 예배의식들(진행)의식문을 예배문으로 하는 성공회와 루터교, 중간파는 예식문 기도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좌파는 예식문 기도문

으로 예배함을 거부하는 웨이커, 오순절교단 등이 있다. 예배에 있어 성경을 깊이 낭독하고 교독문에 시편 사용이 늘고 국경일, 절기예배가 지켜지며 성찬예식이 일 개월에 한 번 혹은 일 년에 몇 차례로 늘고 있으며 시편의 찬송이 예배에 도입되고 교단별로 기도문 예식문을 사용하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1986년 연신 목회자 신학 세미나 강의집, p231 ... 김한식) 최근에는 열린 예배가 도입되고 있는 바, 온 성도가 참여하는 축제로서의 예배, 의식 형식보다는 간단 명료한 예배가 도입되고 있다.(온누리교회) 또한 성의(가운)를 벗고 집례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는 카톨릭적 회귀를 거부하는 개신교적 예배 회복 차원의 모습이라. ‘전통적으로 어거스틴(354-430),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밀란의 감독 캄부르스, 칼뱅(1509-1564), 위샤트(1513-1546). (John Knox의 스승이며 스코틀랜드의 순교자), 마틴 루터(1483-1546), 요한 웨슬레(1703-1791) 등도 생활, 회개, 예배에 있어 시편을 많이 사용하였고 특히 칼뱅은 시편가를 많이 강조하였다.(제6회 연신원 목회자 세미나 강의집, 1986 “예배와 시편”, 김찬국 글, p235-236)

2. 우리 예배의 뿌리를 찾기 위해 예배 목차를 역사적 연대별로 살펴보면

(1) 성경이 초대 교회의 예배, 예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나 솔로몬 행각, 가정 예배(행2:46; 3:11; 5:12; 20:7, 눅24:53, 행20:6-9, 고전11:17-22)등을 통하여 보거나 (‘디다케’의 기도문 ‘곧 디다케 9장, 10장에 실린 기도문으로 성만찬 기도이다.) 유대교 전통에서 성만찬 예배로 전환되는 최초의 기도문’ 등을 미루어 볼 때 초대 교회는 성경 봉독, 집례자의 설교(사도의 가르침), 기도, 찬송시, 인사와 평화의 입맞춤, 봉헌, 성만찬 예사, 성만찬기도, 주의 기도, 성만찬예의 초대, 분병례, 그리고 축도로 이어지는 예전을 가졌을 것이다. ... (“성만찬 예배” 조동호 지음, 은혜출판사 1995. p67-68) 그러나 영국의 예배학자 밀턴은 초대 교회가,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의 성만찬 관계 등을 미루어 볼 때 5-6시간의 예배시간을 가졌고 그 순서와내용은 1)신앙고백 또는 공동기도(시편을 읽었을 듯) 2)찬송(눅 2:마리아의 찬미) 3)기도(마라나타, 회중은 ‘아멘’ 응답) 4)사도의 편지 읽음 5)토라 6)말씀의 선포(주로 예수님 중심... 십자가 부활, 회심, 용서) 7)디다케(말씀 주해 교육... 교사가 한 시간 정도 가르침) 8)예언 9)공동식사(예찬식, 빈부 코이노니아 나눔, 형제애) 10)세례 예식 11)성만찬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본다.

(2) 2세기 초 : 주후 107년에 순교한 Ignatius는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 주교

4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 5 집(2001)

만이 성례를 집행하고 침례 받지 아니한 자는 성찬에 참여치 못하게 했다. 주후 168 년경에 순교한 저스틴은 2세기 중반의 교회들은 주일날 모여 성경을 봉독하고 집례자로부터 설교를 들었으며 일어서서 다함께 기도하고 설교 후 떡과, 물로 희석된 포도주의 봉헌과 성별기도, 분병례와 헌금과 구제가 있었다.

(3) 3세기 초(215년경) : 로마의 감독 히폴리투스가 기록한 기독교 성만찬 문으로, 유대 기독교 성만찬 기도, 로마, 헬라의 기도문으로 로마교회의 '미사경본'의 원형이고 '이 시기에 인사, 쿨리에(공홀구함), 삼성창 등이 공식 예배에 첨가되었다.(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대한 기독교서회 출판사, 1990년 개정판, p83') 동방, 서방 교회가 발전 시킨 성만찬 예전의 원형이었다. 예배와 성례는 언제나 같이 시행됐음을 본다.

(4) 서방 교회에 있어 7세기경의 '그레고리 성사집'에 수록된 예배 순서는 입장 송, 쿨리에(공홀구함), 대 영광송, 집례자의 인사, 본 기도, 예언서나 구약 봉독, 교송, 사도서신 낭독, 알렐루야, 복음서 낭독 후 비 입교인은 퇴장하고 성만찬 예전이 집행되었다. 말씀의 교훈이나 선포가 빠졌다. 점점 예전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화체설이 설득력 있게, 집례 주교의 권익이 신의 대리자로 자리잡게 된다.(성만찬 예배... 조동호 지음 p86, 은혜출판사)

(5) 로마 교회에 있어 Gallic형의 미사(마태의 밀라노와 알프스 산너머 북쪽에서 시행됨)에는 (주후7세기)본 기도, 목회 기도는 사제가, 교회의 기도는 집사가 한 것이 등장되며 구약 및 신약성경 봉독과 설교를 사제가 하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으며 헌금과 기도 이후 성만찬예배가 시행되었고, 중세 미사에 있어 서방교회는 구약 낭독 대신 서신, 복음서 낭독 헌금, 고백, 성찬이 있었으나 설교는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하게 되었으니 케리그마가 극히 약화되었다.(유니온 학술자료, 예배, 설교, 선교 중 p254-5 온준관의 글... 예배의 구조와 모형 중)사체중심, 예전 중심, 기독교 타락 징후가 나타났다.

(6) Calvinism이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라면 Puritanism(청교도주의)는 영국 국교회(Anglican Church)에 대한 종교개혁 운동이었다.(James Hantings Nichols, ed. The Mercersburg Theology... Oxford Univ. Press, 1086, p135)한국 교회는 (개혁, 장로교)서구 개혁 주의 예배 양식이 아닌, 19세기 미국 근본주의의 비의식 예배 형태를 받아들였다. 칼뱅이 1541년 스트라스부르크의 4년간 추방 생활을 청산하고 제네바로 돌아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Sola Scriptura, Sola Fide, Sola Gratia)가 예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제네바 예배식문이

다.(1543).

(7) 마틴루터의 독일어 예배문이 말씀의 예전과 성만찬 예전으로 진행되었으나 양식 그 자체는 카톨릭과 차이가 없었다. 신앙고백은 니케아 신조이고 강론후 성만찬 예전과 아론의 축도로 끝났다. 'Zwingli' 가 1519년 취리히 교회(운스타)에 부임 마태복음 강해, 성찬 기도문 제작 삽입, 기념(상징)설적 성찬제정 및 라틴어를 사용하므로 카톨릭예전에 머물렀고 1526년 성찬식 규정, 및 관례 때 라틴어식문을 폐지했다. 예복 거부, 성상 설치 반대, 악기 및 화답찬송도 제거했다.(김수학, 개혁 예배 신학, 대구보문출판사, 1982, p55)특히 쾰른의 연4회의 성찬식을 가졌다. 예배순서는

- 말씀의 예전 : 1)봉헌(성물준비) 2)집도문 3)주기도 4)서신서 5)강론 6)복음서 7)사도신경 8)십계 9)죄의 고백과용서의 기도
- 다락방 예전 : 10)교훈 11)성찬단의 정리 12)주기도 13)성찬의 말씀 14)분별분찬 15)시편교송 16)기도문 17)폐회

(8) 제네바에서는 파렐이 쾰른과 비슷한 예배 형태를 취했고 성찬의 견해는 달랐다. 칼뱅이 오기전, 이런 식의 예배가 시행되었다.

(9) 이제 실로 중요한 대목을 보자. 제네바에서 추방된 칼뱅이 스트라스부르크의 개혁자 마틴부처(Martin Bucer)와 프랑스계 난민을 돌보면서 부처의 영향을 받는다. 부처는 우선 자국어(독일어)로 집례했고, 미사 대신 주의 만찬(성찬),사제(신부)대신 목사(Minister)를 사용했다. 쾰른의 예배문을 15년간 18회 수정하여 '말씀의 명료성(메시지), 성령역사 회복, 성령에 의한 회중의 응답, 예배에서의 공동체적 성격 회복 등이다.(岸本羊, 北村宗次 편, 그리스도교 예배사전, 동경 일본 기독교단 출판국, 1982) 마틴 부처는 니케아 신조 대신 사도신경 채용, 연속 성경 일과(日課)채용, 강론 중시, 성찬대의 이동(회중과 마주보게), 주일날 검정 가운은 허용하나 특별 사제복 폐지, 성찬은 매주 함이 원칙이나 일 개월에 일회 함. 시편이나 찬송이 예배중 행해짐. 예배순서를 보자.

- 말씀예전 : 1)예전준비 2)영광송 3)죄의 고백 4)사죄의 선언 5)시편 교송 6)인사와 응답 7)입당송 8)자비를 구하는 기도 9)영광송 10)기도문 낭송 11)서신서 봉독 12)복음서 봉독 13)신조(니케아, 사도)
- 성만찬 : 14)봉헌 15)성물배열준비 16)성찬서문 성경 17)성경통독(시95) 18)손 씻음과 기도문 19)전문(典文)-중보, 생활 기도, 성찬, 말씀, 회상 10)

주님의 기도(음울로) 21) 목사성도 교제(입맞춤) 22) 하나님의 어린양 노래 23) 성만찬 기도문 24) 성도들의 교제 25) 분별분잔 26) 성찬후 기도 27) 인사와 응답 28) 강복 선언

(10) 칼뱅에 의한 제네바 교회의 예배 : 예배의 두 기둥은 강론과 성례전이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 칼뱅은 스트라스부르크의 부처의 영향을 받았으나 더욱 성경적 역사적 면에 중점을 두었다(Ilion T. Jones, p165). 하나님 임재를 체험케 하는 예배 부름, 죄의 고백, 강론, 성만찬, 시편가의 찬양을 통하여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이루게 했다.(김수학, p56). 그의 기독교 강론에서도 밝혔듯이. 주의 만찬은 매 주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제네바의 시민 반대로 월1회로 조정됐다. 1542년 초대 교회의 예전 연구 예식서의 예배 형태는

●말씀의 예전 : 1)예배의 부름 2)영광송 3)죄의 고백 4)용서에 대한 성구 5)용서의 선언 6)운율노래로 시편이나 십계 전반부-퀴리에(공홀히 여기소서) - 반복 7)영광송 8)성경말씀 9)강론

●성만찬 예전 : 10)구제 연보 11)중보의 기도 12)주님의 기도 13)성물의 준비 14)사도신경(노래) 15)성찬기도 16)성만찬말씀증거 17)성찬에 초대 18)분별분장 19)성만찬 참여 20)성찬후 기도문 21)시므온의 찬미(눅2:29-32) 22)아론의 축복기도

●성찬식이 없을 때 : 11)중보의 기도 12)주님의 기도 13)사도신경 14)시편가 15)아론의 축복기도. 예배당에는 시편 찬송가로 충만했다. (개혁신학, 바른신앙사, p365-380. 이성재의 글 중)

3. 한국 장로교회에 영향을 미친 예배는 무엇인가? John Knox(1504-1572)가 Anglican Church에 의해 제네바로 추방당했고 두 번째 제네바에 추방당했을 때 칼뱅예배의 영향을 받아 예배식문을 제정하나, 죄의 고백용서의 성구, 용서의 선언이 빠졌다. 이 낱스 예식문을 청교도들이 사용했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의 근간이 된다.(William D, Maxwell, 스코틀랜드교회 예배역사, 옥스퍼드대 출판사 1953, p89). 장로교회 정치를 이룬 스코틀랜드에서 80년간 이 예배 예식서는 정착되었고 1644년 '웨스트민스터 예배 지침'의 허락을 영의회서 받는다. 1645년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가 공식 수용, 세계 장로교회의 예배 근간이 되었다. 예배는

- 말씀의 예전 : 1)예배에의 부름 2)예배기도(찬양, 성령 임재 구함) 3)구약의 말씀(1장) 4)신약의 말씀 5)운율시편 6)고백과 중보기도 7)강론 8)기도(구원, 복음, 말씀, 감사) 9)주님의 기도
- 성찬예전 : 10)봉헌(성물을 그릇에) 11)성찬에의 초대 12)성물 성별 13)성찬의 말씀(고전11장) 14)교훈 15)봉헌의 기도 16)성체분별 17)분별분장 18)성도들의 참여와 묵상 19)생활 강조 20)성찬 후 기도 21)시편가 22)축복기도

한편 1563년 Heidelberg Confession 저자 자하리아스 울지누스와 카스팔 오레비아누스가 루터, 쾰빙글리, 칼뱅 예배식문 절충식문을 작성, 독일 개혁신교회의 최초 예배식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예식문이 화란 개혁신파의 예문이 되었다. 두 가지 중요한 초점은 스코틀랜드의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예배식문의 주일 성수와 강론에 초점을 둔 사상을 갖고 미대륙에 건너갔고 미 동부로 간 독일, 화란 성도들은 하이델베르크 예배식문의 간소한 강론 중심과 성찬 없는 주일예배를 추구한 쾰빙글리의 영향으로 남게 된다.

4.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신학은 칼뱅어로, 예배는 웨스트민스터의 형태를 취하다, 1800년부터 있는 미국의 대각성운동으로 복음주의는 강조하고 탈 의식 예배가 성행되었다. 곧 ‘형식 없는 예배, 성례 집행자 부족으로 성례에 둔감, 복음설교 중심, 복음 찬송도 입으로 예배, 전통무시(시편 소홀) 등으로 말씀과 성례의 균형이 깨지고 오순절 운동과 더불어 비 형식적 예배가 난무케 되었다. 한국교회는 각성 운동의 영향받은 선교사들이 한국문화를 고려치 않은 성례 무관심 예배쪽으로 기울게 했다.(김동수, 예배학 개론, p220)’

5. 한국 개혁신파(장로교)교회는 원칙 없는 비 전통성, 예전 소홀(성찬)-쾰빙글리 입장 따름-선교사들의 예배 정립 없는 선교(한국에), 성장학에 따른 무분별한 예배 개발, 부흥사적 감정 폭발 및 전도 중심 예배,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다는 미명하에 원칙 없는 예배가 난립하고 오순절 및 세속의 영향을 받고 있다.(체험, 은사, 기복)

6. 우리 교단 헌법 '예배모범'에는 제1장이 주일 성수가 나오고, 예배 행위의 존절함, 경건한 성경봉독, 시와 찬송하는 구체적 방법, 공식기도(영광, 감사, 자복, 간구, 간구 근거, 중보기도), 설교와 설교후 기도의 시간등, 공식 예배에서 모든 순서를 골고루 분배토록 하고 있다. 성례식의 방법도 나온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식 예배학의 모범도 없고 개혁과 교회의 정체성마저 없다.

III. 맺는말

오늘날 예배는 시간성, 공간성, 영성(성령인도), 집례자의 바른 인식(예배)과 회중의 일체감, 감동과 회개, 기쁨과 거룩함, 헌신과 축제적 응답 반응의 교통, 결단과 세상 삶 속에서 6일간의 현장의 노동과 사회 생활 전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활 예배로 연결되는 예배가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1. 시정 및 제안점은 무엇인가? 해치우는 예배보다는 영성과 감동의 성경중심적 예배 곧 초대교회 예배의 회복인 떡을 떼며(평등성, 교제, 성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말씀의 강론이 일과성적 강해로 선포와 교훈, 교육의 배합), 구제(구체적 섬김, 주는 날)등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 한다.
2. 사제 중심적이고 예전에 치우친 카톨릭도 배격하고 은혜의 수단인 성례전의 무분별함(그리스도교회)도 배제하면서 칼뱅적 성례 회수의 회복이 되어 한다.(영적 입재)
3. 시편 찬송의 개발이 시급하다.
4. 묵도는 일본의 신도주의에서 유래된 용어다. 일제 잔재니 버리고 예배의 부름으로 고쳐야 한다. 사회자는 집례 혹은 예배자로, 교제시간의 회복, 예배 인도자 중심보다, 교독, 교창하는 기도, 공홀의 기도, 교독 등 일체감의 과감한 시행과, 칼뱅적 용서의 기도와 속죄 선언 도입, 구약, 신약 봉독, 찬양 응답, 강단의 종(鐘)역시 불교 유래이므로 없애고, 기도는 예배기도, 중보기도, 등으로 하고 교회력에 근접한 예배갱신, 찬송가 부를 시 일어서는 행위 등을 개발해야 한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가 예물을 믿음과 인격으로 먼저 드렸다. 순서상 예물 드림이 설교 전에 와야 한다. 예배의 성공은 신앙인의 최대 성공이다. 예배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5. 오늘날 빠른 템포의 음악도입과 가스펠 송의 대중화와 찬양축제중심의 새 패러다임의 예배가 짧은 유행성에서 끝날지 아니면 공동체 참여 예배로 계속 될지는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고 그럼에도 개혁과는 본래적 예배의 전통성과 정통성, 그리고 개발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영성있는 예배와 전통의 조화를 위해 기본 골격의 주일 정기(낮)예배안을 제시한다.

<주일 예배 안>

집례(인도)자 --- 목사

개회

- 1)오르간 전주 오르가니스트
- *2)예배의 부름 인도자(전성도 일어서서 인도자의 예배초청(하나님)선언)
- *3)입례송 찬양대(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
- *4)시편낭송 인도자
- *5)영광송 찬양대(삼위일체 찬양)

찬미, 고백

- *6)찬송 다함께(예배 찬송 - 영광)
- *7)죄의 고백 다함께(고백문 게재)
- *8)용서의 말씀과 선언 인도자(성경의 속죄구절)
- *9)사도신경(고백) 다함께
- *10)교독문 다함께(절기, 예배따라)
- *11)찬송 다함께

중보의 시간

- 12)목회기도 담임 혹은 준비된 예배자(예배기도 명료히)
- 13)응답송 찬양대



감사와 응답

- 14)찬송 다함께
- 15)봉헌 다함께
- 16)봉헌기도 ... (찬양대) 위원

말씀의 봉독과 설교

- 17)구약성경 봉독 인도자
- 18)찬양 찬양대(말씀봉헌)
- 19)신약성경봉독 인도자
- 20)강론(설교) 강론자
- 21)도움의 기도 강론자
- 22)찬송 다함께(결단, 헌신)

교제과 약속

- 23)친교와 환영 위원
- 24)광고 위원(간단히)

파송과 축도

- *25)오늘의 위탁 목사
- 26)축도 목사(고후13:13)
- 27)송영 찬양대
- 28)후주 오르가니스트

